

민주 내달 4일 원내대표 경선 누가 나오나

# 호남권 4선 이낙연 의원 등 5명 거론

수도권 박영선·유인태·전병헌 등 출마 저울질

당대표엔 박지원·이인영·문희상·이해찬 물망

민주통합당이 다음달 4일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6월9일 전국대의원대회(전대)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출마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내대표의 경우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어려운 당 상황을 수습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성격을 맡게 된다. 또 민주당 의석수도 18대 국회보다 40여석 가까이 늘어나 영향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당 대표와 함께 원내 사령탑으로서 킁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16일 현재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굳혔거나, 출마를 고민 중인 인사가 10명이 넘을 정도로 치

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최고위원을 역임한 뒤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찌감치 물러난 박영선 의원(3선·서울 구로구)과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전병헌 의원(3선·서울 동작구)이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젊은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3선의 박기춘 의원(3선·경기 남양주)과, 조정석 의원(3선·경기 시흥)을, 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유인태 의원(3선·서울 도봉구)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에서는 이낙연(4선·담양함평 영광장성), 강기정(3선·광주 북구갑), 김동철(3선·광주 광산갑), 우윤

근(3선·광양구례), 주승용(3선·여수) 의원 등이 정치적 비상을 위해 출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총천령의 고전 속에서도 4선에 성공한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과 3선의 노영민(충북 청주 흥덕)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며 PK(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적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조경태(부산 사하)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의 경우 아직 출마 예정자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 출마자와 상호 교감을 통해 출마를 타진하는 정치인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이 선출되는 당대표는 오는 6~8월 대권 후보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있어 계파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박지원(목포)·이인영

(서울 구로갑) 최고위원 등 현 지도부 가운데 상당수가 또 다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와 대표 경선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표주자로 이해찬(6선·세종시), 486 만형격인 신계륜(4선·서울 성북) 당선자도 우선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희상(5선·경기 의정부갑) 국회 부의장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한길(4선·서울 광진갑) 의원은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 동구의 3선 박주선 의원도 복당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면 출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낸 박용진 대변인도 당내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출마를 고민 중이다.



문성근 대행 최고위 주재

1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가다듬어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민생공약실천특위 위원장에 이용섭 의원

민주통합당은 16일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와 불법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용섭 의원과 우윤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권과보도저지특별위원회를 언론정당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윤 의원)로 개편했다.

민주당은 6월9일에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와 다음달 4일 열리는 원내

대표 선거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9일 당무위원회와 당선자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원내대표 선출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당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보고받은 뒤 4·11 총선 결과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새누리 대변인 이상일씨

새누리당은 16일 합령 출신인 이상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자를 당 공동 대변인에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 대변인은 이번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8명)로 국회에 입성했

다.

또 총선 기간 중엔 조윤선 의원과 함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대변인은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당분간 기존 황영철 대변인과 이 대변인의 '투톱' 체제로 운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보폭 빨라진 야권 대권주자들

안철수 행보 관심 속 문재인·손학규·정세균·정동영·김두관 '눈길'

4·11 총선이 끝나면서 야권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설 인물은 안 원장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 원장 역시 최근 강연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면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며 정치 참여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원내 진

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른바 낙동강벨트에서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당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부산에서 31.78%, 경남에서 25.61%를 기록, 대선을 앞두고 일정 부분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친노 진영에 맞설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지사 출신의 손 상임고문이 호남과 구(舊)민주계 출신 의원들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경우 적지 않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서울 지

역의 캠프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정치인이라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던 정 상임고문은 종로 승리를 통해 전국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 을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정동영 상임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등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좌·클릭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선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영남 내선 승리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박근혜 다시 막후로...대선까지 행보는

4·11총선을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8개월 뒤 대선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의 선출로 당이 정상화되면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박 비대위원장도 각종 당직을 내려놓게 된다.

새 지도부의 면면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만 계속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선거·조직을 깨놓으며 현실정치에 밝은 당대표가 바람직하지, 아니면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쇠신 이미지가 강한 인사가 적절하지를 놓고 박 위원장이

고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6선의 고지를 밟은 친박 핵심 강창희 당선자와 4선의 김이 모아지고 있다. 5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의 대표론이 대두되며 황우여·남경필·정두언 의원이 거명되고 시작할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차기 원내대표도 관심이 쏠린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종 민생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비대위의 쇠신체도를 유지하면서 새 정책기조에 따른 입법화를 추진할 인물이 원내 사령탑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선에 성공한 서병수·이주영 의원과 3선의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나온

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 지도부로의 바통터치가 끝나면 대선주자로 움직이게 된다. 당에서 8월 경선과 5~6월 경선캠프 출범안이 고려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거의 공백이 없이 대선준비로 전환하는 시간과다.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경선캠프를 중심으로 각종 강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생현장 탐방으로 국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국민의 정치 피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대선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4·11총선 직후 양자구도 여론조사

### 박근혜 47.9% 안철수 44.8%

4·11총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자구도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는 지난 12~13일 전국 19세 이상 출생 때까지 당분간 기존 황영철 대변인과 이 대변인의 '투톱' 체제로 운영된다.

록한 안 원장을 3.1%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박 위원장이 안 원장을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도 박 위원장은 45.3%로, 안 원장(47.8%)에 2.5%포인트 밀렸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11일 총선 직후 19세 이상 투표

참여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위원장은 45.1%를 얻어 35.9%의 안 원장을 제친 바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박 위원장과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과의 양자 구도에서 박 위원장이 51.6%의 지지율로 38.5%를 기록한 문 상임고문을 13.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임의전화결거(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3%포인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완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칠만표방수제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물,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